**WOA 그래픽을 위한 총기 폭력 통계**

*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평생 동안 최소 한 명 이상의 총기 폭력 희생자를 알게 된다. [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깁포드 법률 센터](https://giffords.org/lawcenter/gun-violence-statistics/)
* COVID-19 전염병 유행은 미국의 총기 폭력 사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.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총격으로 인한 사망은 3,906명이 늘었으며, 총기 부상은 9,278명이 늘었다. [2020년의 총기 폭력과 COVID-19 (2021). 총기 반대 단체 'Everytown for Gun Safety'](https://everytownresearch.org/report/gun-violence-and-covid-19-in-2020-a-year-of-colliding-crises/)
*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백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, 총기 판매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, 가정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총기가 들어왔다. 그 결과 아이들의 실수로 인한 총격 사망이 늘어 났다. 2019년과 3월부터 12월까지와 비교할 때 2020년 동일 기간 동안 이러한 총기 사고는 거의 삼 분의 일이 증가했다. [2020년 총기 폭력과 COVID-19, (2021). 총기 반대 단체 'Everytown for Gun Safety'](https://everytownresearch.org/report/gun-violence-and-covid-19-in-2020-a-year-of-colliding-crises/)
* 보편적 신원 조회(Universal background check)는 총기 폭력 예방 정책의 기초 역할을 한다. 미국인의 90% 이상이 보편적 신원 조회를 찬성하고 있다. [퀴니피악](https://efsgv.org/learn/policies/universal-background-checks/) 대학의 여론조사(2019).
*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장로교의 지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. [미국장로교 116차 총회 회의록(1976), 페이지 103.](https://www.presbyterianmission.org/what-we-believe/gun-violence/)